

분명히 보입니다

뉴저지의 생활을 마무리 하고 서부 오레곤으로 떠나 왔던 작년 어느 날 나의 마음은 많이 착잡하고 답답했다. 또 하나의 사역을 마무리 하며 1세 목회에서 일찍 은퇴를 계획하며 아사했기 때문이다.

이사 후에 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새로운 사업이었고, 늘 마음에 맴돌던 목회 사역에 대한 생각은 어려웠지만 접기로 했다. 그리고 1년 7개월을 보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 선교지로 향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얼마 전 어렵게 시작했던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곧 깨닫게 되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다. 그 많은 건강한 교회들이 있는데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했지만 나의 마음에 주신 깨달음은 이 시대 이 지역에 원하시는 “**그 교회**”라는 말씀이었다. 하지만 자신감도 없고 하고자 하는 열정도 턱 없이 부족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가 다르게 이전에 가졌던 열정을 조금씩 회복시키신다. 마치 작은 불씨가 나무에 서서히 붙어서 꺼지지 않을 불이 되듯이 말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부르심을 깨닫고 나니 모든 일이 새롭게 보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이기에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가운데 확실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까? 나도 모른다. 어떠한 일이 앞으로 일어날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시고 나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것뿐이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흥분되게 한다. 생각만 하고 기도만 해도 기분 좋은 것은 무슨 이유일까? 많은 사람도 없고 건물도 없는데 그 문언가를 잡고 있는 것이 확실히 느껴지는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이다. 성령께서 순간순간 이끄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임을 믿는다.

얼마 전 우리 가까이 있는 후드 산(Mt. Hood)에 아내와 함께 갔었다. 산꼭대기가 가까이 보이는 곳에 앉아 멀리서만 보았던 눈 덮인 후드 산꼭대기를 보며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는 줄도 몰랐다. 멀리서 겨우 보았던 그곳을 확실히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산은 꿈과 같은 곳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가지 못할 곳도 아니었으며 벽에 붙어 있는 그림도 아니었다. 그 산꼭대기는 눈앞에 정확하게 서 있었다. 그리고 나의 놀란 가슴에 현실임을 분명히 해 주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종 보이지 않는 길을 걷게 하신다. 잡히지 않는 것을 향해 달려가라고 하신다. 하지만 가슴에 불붙듯이 분명한 뜨거운 것을 주시면서 믿음으로 보라고 하신다. 지금이 그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가 늘 구하는 것은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믿음으로 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잡힌 것을 잡으려 뛰어가라고 하신다.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오레곤 새로운 교회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십자가다.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즐겁고 기쁜 가슴으로 자원하며 달려가라고 하신다. 그 때에 이전에 맛보지 못한 은혜와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현실로 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말씀하신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14절)

우리의 고백이다. 또한 계속되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를 불러 주셔서 고맙고 고맙습니다”